

저녁을 먹던 중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다. 식탁 위에 얹어 둔 전화가 진동할 때마다 손가락 옆 물컵에 잔물결이 번졌다.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글이 쌓이고 있었다. 한 여성 회원이 다음 행사 계획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뒤였다. 행사 순서와 예산, 차량별 인원과 회원들이 맡을 일을 표로 정리한 자료였다. 며칠 동안 준비했다는 짧은 설명도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모임 장소가 좁다는 말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그러다 누군가가 발표와 상관없는 말을 꺼냈다.

“여자가 저렇게 목소리가 세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곧 웃는 이모티콘 하나가 붙었다.

“너무 당차 보인다”, “조금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겠다” 라는 글도 이어졌다.

발표자가 만든 표와 계획은 금세 대화방 위쪽으로 밀려났다. 남은 것은 그의 목소리와 웃차림에 대한 말뿐이었다. 그런 장면이 낯설지는 않았다. 남성 회원이 큰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면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단호하게 일을 추진하면 결단력이 있다는 칭찬도 따라왔다. 그런데 여성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은 먼저 그의 말투를 문제 삼았다.

나도 웃는 이모티콘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특별한 뜻 없이 누르려 했다. 여러 사람이 웃고 있는 곳에 조용히 섞여 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을 떼고 영상을 다시 열었다. 발표자는 긴장했는지 한 문장을 두 번 되풀이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들뜬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 폈다. 표 안의 작은 숫자를 짚어 가며 누가 어느 차량에 타야 하는지, 남은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설명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준비한 시간이 보이는 발표였다. 그 시간은 몇 개의 웃음 표시 아래에서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대화창에 문장을 적었다.

“발표 내용으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같은 발표를 남성이 했다면 그의 목소리와 웃차림부터 평가했을까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 글을 지우면 저녁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식탁 건너편에서 아내가 식은 된장찌개를 들고 일어났다. 가스레인지의 점화 장치가 몇 번 타닥거린 뒤 불이 붙었다. 냄비 아래로 푸른 불꽃이 둥글게 번졌다.

나는 화면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대화방의 말들은 계속 남을 것이다. 누군가는 웃고 지나가겠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 기억할 지도 모른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글이 올라간 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빠르게 나타나던 웃음 표시도 멈췄다. 읽지 않은 사람의 수만 하나씩 줄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얹어 놓았다. 식탁이 갑자기 넓어진 듯했다.

잠시 뒤 알림음이 한 번 울렸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발표 내용으로 돌아가죠.”

다른 회원이 행사 장소에 관한 의견을 적었다. 또 다른 사람은 차량별 인원을 다시 확인하자고 했다. 처음 말을 꺼냈던 회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글도 한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화는 더디게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뒤로 발표자의 옷차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며칠 후 발표자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그날 영상을 지울까 했습니다. 제 발표보다 제가 여자라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한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다. 내가 보낸 것은 겨우 두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를 지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날 이후 단체 대화방에 글을 쓸 때면 손가락이 전보다 조금 늦어진다. 같은 행동을 두고 남성에게는 자신감이라 하고 여성에게는 드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의 의견보다 성별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평등을 위해 언제나 대단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웃음처럼 번지는 말들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성별에 가려질 때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도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아내가 데운 된장찌개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김이 휴대전화 위를 잠시 스쳐 갔다.

그날 나는 한 사람의 노력을 지키기 위해 짧은 문장 하나를 보냈다. 그리고 노란 웃음 뒤에 보텔 또 하나의 조류는 끝내 보내지 않았다.